

전남 한우, 올 전국대회 ‘싹쓸이’... ‘최고 품질’ 입증

영암 박혜립, 축산물평가 대통령상
신안 이평관, 한우능력 국무총리상
영암 조형일, 한국축육개량협회장상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 성과

전남 한우가 올해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을 휩쓸며 최고 품질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진행한 축산물품질평가 대상에서 5300여 농가 중 영암 박혜립 농가가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박혜립 농가가 지난 1년간 출하한 34마리의 한우 중 1++등급 출현율이 31마리로 91%, 1+등급 출현율은 3마리로 9%

며, 1등급 이하 판정 기록은 없었다. 한우 농가 평균 등급 출현율은 1++ 등급 39%, 1+ 등급 30%, 1등급 22%, 2등급 이하 9%다.

보성 안중학 농가도 1년간 50마리를 출하해 1++등급 출현율이 45마리 90%로 전국한우협회장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주최한 2024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선 출하된 한우 265마리 중 신안 이평관 농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1kg당 6만 원으로 최종 경매가격 3816만 원의 최고급 한우로 낙찰됐다.

이는 전국 한우 1kg당 경매 평균 가격인 1만7924원보다 3.3배나 더 높은 가격이다.

같은 날 경매된 영암 조형일 농가의 소는 1kg당 3만4000원으로 평균 가격의 1.9배를 기록하며 최종 경매가격 1750만원에 낙찰돼 한국축육개량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 외에도 2024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선 암송아지 부문에서는 고흥 박지호 농가가 발육과 골격이 매우 우수해 한눈에 봐도 송아지라고 볼 수 없는 격을 가졌다는 평을 받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는 소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게 밀식 사육하지 않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한 결과다.

미경산우 부문에선 장흥 보우영농조합 법인이 농협중앙회장상을, 전남도는 지자

체 장려상(3위)을 수상했다.

농가 관계자들은 우수한 성적 비결로 ‘전남도 으뜸한우 송아지 브랜드 사업’을 꼽았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전남도 송아지 브랜드 사업은 지금까지 1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1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한우를 으뜸한우로 선발하고 있으며, 으뜸한우에서 태어난 송아지를 으뜸송아지로 지정한다. 으뜸송아지는 일반 송아지보다 20% 가량 경매가격이 높고, 마리당 173만 원의 추가 소득으로 전남도 한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남 한우가 대회마다 입상하는 것은 1만6000여 한우농가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개량의 길은 멀고 후대의 표현력에서 증명된다. 내년에도 더욱 개량된 한우를 출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2년 한우경진대회에서 우량한우 대통령상, 암송아지 농촌진흥청장상, 번식2부 농협중앙회장상, 미경산우 축육개량협회장상과 지자체 종합우승을 거머쥐었으며, 작년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도 대통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상을, 축산물품질평가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 2년 연속 전국 1위

제2자원화시설 환경부 ‘최우수’

광주시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이환경부 주관 ‘2024년 전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지난해 제1음식물자원화시설에 이어 2년 연속 전국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2관왕을 차지했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전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성 및 관리체계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환경성·기술성·경제성·안전성·거버넌스 등 5개 항목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평가에서 광주시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기술진단 추진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통한 악취 관리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재사용을 통한 운영비 17억원 절감 △사료·유분 생산을 통한 폐기물 100% 자원화로 5억5000만원 수익 창출 등 환경성·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국 73개소 시설 중 최고 점수인 86점을 받아 전국 1등을 차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매년 전국 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성 및 관리체계 등을 평가한다. 평가는 환경성·기술성·경제성·안전성·거버넌스 등 5개 항목에 대한 운영실적 검증과 현장 확인을 통해 이뤄진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총력

내년 1월17일까지 집중 발굴 전 시군 AI 상담 시스템 도입

전남도는 겨울철 생활 여건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맞아 22개 시군과 함께 내년 1월17일까지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가스·수도 등이 끊기거나 요금을 체납하는 등 위기 요인이 감지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입수한 단전·단수·체납정보 등 위기 징후 빅데이터 47종에 속하는 복지 사각지대 1만 명의 명단을 받아 관할 시군 및 읍면동으로 통보하고, 해당 가구 전화 상담과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상담을 시행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로 확인되면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 급여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인공지능 전시회 ‘AI TECH+’ 개최

광주시는 인공지능(AI) 전시회인 ‘AI TECH+ 2024’를 28~29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광주관광공사·한국인공지능협회가 주관하고, 전남도농업기술원, (사)인공지능산학연협회, 와이엔아처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로 3회째인 ‘AI TECH+ 2024’는 ‘AI + 스타트업(Startup)’을 주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스트씨큐리티, 테라웨이브 등 44개 기업·기관이 80여개의 전시부스에서 인공지능기술과 융합산업을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지역 최대 규모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과 함께 열려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노병하 기자



강 시장, 광주교대 학생들과 현장 소통 강기정 광주시장이 27일 광주교육대학교를 찾아 ‘청춘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를 주제로 대학생들과 대화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스토리텔링 광주’ 여행상품 선보인다

무등에서 온 편지·양림 낭만 달빛 인물·역사이야기...버스연계 투어

광주시에 광주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들과 광주근대역사문화로 구성된 ‘스토리텔링 광주’ 투어상품을 선보인다.

이번에 출시된 상품은 ‘무등에서 온 편지’와 ‘양림 낭만달빛투어’를 주제로, 무등산과 양림동지역을 버스로 이동하는반일투어로 진행된다.

오는 29일과 12월 1일, 12월 7일 총 3차례 진행되는 이번 투어상품은 오후 3시 출발해 장소별로 90분씩 머물며 역사인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각 지역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스토리텔링 광주’ 투어는 참가자들에게 그동안 익숙했던 장소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발견하고, 역사인물들의 이야기 등을 통해 각 지역의 깊이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무등에서 온 편지’는 문화해설사 역할을 맡은 배우와 함께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며 진행된다. 무등산 국립공원입구부터 문빈정사, 증심교, 의재교를 지나 춘설현까지 산을 오르며, 광주의 정신을 대표하는 인물인 허백련, 최흥종, 최원순이 남긴 편지를 통해 광주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산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양림 낭만예술투어’는 시간여행자 개념으로 활동하는 배우이자 해설사인 모단 걸씨와 함께 진행된다.

양림동 역사거리인 양림교회, 오웬기념각, 호랑가시나무 언덕을 지나 사직공원까지의 코스를 따라 근대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양림동을 걷는다. 여행의 시작과 끝에 시 낭송과 악사 공연이 어우러져 특별한 분위기를 더한다. 참가자는 단순

히 걷는 것 이상의 경험을 하며, 광주의 문화예술을 감상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번 ‘스토리텔링 광주’ 투어 상품이 광주만의 고유한 장소와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지역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어 상품은 금호고속 예매(www.kumhoaround.com 또는 전화 062-360-8502)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광주중정역 시외버스정류장과 유스퀘어터미널에서 출발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070-4239-5040(주스کم퍼니)로 문의하면 된다.

‘스토리텔링 광주’는 광주만의 정체성과 자산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지역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주시는 내년에도 지역 정체성과 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출시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광주교통공사, 전 역사 ‘세이프 로드’ 설치

광주교통공사가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안내선 설치 및 외부 출입구 폴사인 전면 교체 등 대대적인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섰다.

27일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해 전 역사에 ‘세이프로드’ 부착을 끝마쳤다. 세이

프 로드는 교통약자들이 한눈에 엘리베이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닥에 붙이는 방향유도 색갈피를 말한다. 직관적인 그림과 방향 표시 직선, 현시성 높은 색상으로 구성돼 있어 어르신이나 외국인 등 교통약자들도 손쉽게 승강기를 찾아 이용할 수 있다.

전 역사에 세이프 로드를 설치한 것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최초 사례로, 이를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각 역사 출입구 폴사인을 깔끔하고 현대적인 이미지의 새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해 도시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였다.

노병하 기자